

COVID19를 경험한 대학생의 진로 장벽, 자기효능감, 대학적응의 관계: 고학년과 저학년 비교

박정혜*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e-mail: masternur@naver.com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Career Self-Efficacy and College Adaption of Undergraduates Going Through COVID19

Jeong-Hye Park*

*Dep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의 관계를 확인하여 재학생의 대학 적응 및 진로와 취업 준비를 돕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020년 12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242명이다. 자료의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증, 일원 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관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학년과 비교할 때,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1학년이 유의미하게 높았고($F=3.61, p=.013$), 대학 적응은 4학년이 높았다($F=10.84, p<.001$). 진로 장벽은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0.57, p=.634$). 저학년과 비교해 고학년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을 확인한 결과, 진로 장벽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beta=-0.14, p=.154$), 대학 적응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beta=0.77, p<.00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저학년에 높았으며($\beta=-0.66, p<.001$).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 적응 프로그램,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재학생의 대학 적응 및 진로와 취업 준비를 돕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1. 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발생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합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대응 전략은 거의 모든 사회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시켰다. 대학생도 예외 없이 대부분의 학습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과 외 활동은 시행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교과 외 활동에는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대학 재학생의 진로와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재학생의 진로와 취업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또한, 대학의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들은 재학생의 대학 적응을 돕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은 재학생의 대학 적응은 물론, 진로와 취업 준비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1~2학년(저학년)은 대학 적응에, 3~4학년(고학년)은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학년에 따른 재학생의 대학 적응, 진로와 취업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20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표본은 2020년 일개 대학에서 실시한 재학생 대학 생활 실태조사 참여자 1,242명이다.

2.2 연구 도구

2.2.1 진로 장벽

Tak, Lee[5]가 개발한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K-CI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5개 요인(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함,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 장벽), 22문항, 5점 Likert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59~.94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벽이 높음을 의미한다.

2.2.2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CDMSSES-SF(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6]로 측정하였다. 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 5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5개 요인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택, 계획, 문제해결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1.3 대학 적응

정은이, 박용한[7]이 개발한 대학 적응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19문항, 5점 Likert 척도, 5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5개 요인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2020년 12월, 일개 대학에서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취득은 본 연구를 위한 IRB 심의 후 대학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았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저학년(1~2학년)과 고학년(3~4학년)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총 1,242명 중 남자가 51.9%(644명), 여자는 48.1%(598명)이었고, 학년은 1학년 22.9%(285명), 2학년 24.4%(303명), 3학년 25.1%(312명), 4학년 27.5%(342명)이었다.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다른 학년과 비교할 때,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1학년이 유의미하게 높았고($F=3.61$, $p=.013$), 대학 적응은 4학년이 높았다($F=10.84$, $p<.001$). 진로 장벽은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0.57$, $p=.634$).

[표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Sex and Grade (N=654)

Variables	N	%	Barrier*		Self-Efficacy**		Adaption***	
			M±SD	F/t(p)	M±SD	t(p)	M±SD	F/t(p)
Sex	Male	644	51.9	2.5±0.81	-1.72	3.4±0.72	3.3±0.67	-0.44
	Female	598	48.1	2.6±0.71	(.086)	3.4±0.64	3.4±0.61	(.661)
Grade	1st ^a	285	22.9	2.6±0.75	0.57	3.5±0.66	3.2±0.61	10.84
	2nd ^b	303	24.4	2.6±0.75		3.4±0.67	3.3±0.61	
	3rd ^c	312	25.1	2.6±0.79		3.3±0.72	3.4±0.65	
	4th ^d	342	27.5	2.5±0.77		3.4±0.68	3.5±0.66	

*Career barrier
**Career self-efficacy
***College adaption

저학년과 비교해 고학년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을 확인한 결과, 진로 장벽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beta=-0.14$, $p=.154$), 대학 적응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beta=0.77$, $p<.001$),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저학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66$, $p<.001$).

[표 2] Logistic regression between low and high grade groups

Variables	B	p	OR	95%CI
Career barrier	-0.14	.154	0.87	0.72-1.05
Career self-efficacy	-0.66	<.001	0.52	0.41-0.66
College adaption	0.77	<.001	2.15	1.71-2.71

Model effect : $\chi^2=57.86$, $p<.001$, Hosmer&Lemeshow $\chi^2=2.71$, $p=.951$
Classification accuracy=58.7%
Reference : low grade(1~2 grades)

참고문헌

- [1] 김유천, 신인수, “대학생 진로·커리어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코칭연구, 제 14권 1호, pp. 49-69, 8월, 2021년.
- [2] 방희원, 손승민, 조규판, “대학생의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진로동기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 20권 16호, pp. 547-568, 10월, 2020년.
- [3] 박은, 김정민, “대학생의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사회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 재확인 추구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22권 3호, pp. 669-685, 9월, 2017년.
- [4] 정재원,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문화와 융합, 제 43권 7호, pp. 221-244, 9월, 2021년.
- [5] Tak, J., Lee, K.H.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제 11권 3호, pp. 328-345, 2003년.
- [6] Betz, N.E., Klein, K.L., Taylor, K.M.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제 4권 1호, pp. 47-57, 1996년.
- [7] 정은이, 박용한,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제 21권 2호, pp. 69-92, 2009년.